

국적 생태 현상의 토착적 기반을 전혀 또는 상당 부분 인정하기 않거나 과소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

토착적 전통주의는 한국의 고유한 토착성을 배경으로 한 외래 사상의 접합 변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언론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토착적 전통주의는 충분한 실증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생태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자료가 쉽게 발견되지 못할 때 의미의 관독과 계보화의 한계가 초래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 언론관은 토착적 전통주의의 입장에 착안한다. 우리 사회에는 토착적으로 언론이라는 말이 있어왔고 일본을 경유하여 새로운 언론 사상이 유입되어 결합하면서 근대 언론으로 된다는 생태 구성에 따른 계보론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서구지향적 언론관에 빠진 절대 다수의 연구자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띤 반박인 동시에 전제한 한국적 언론 현상의 과소한 평가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적 생태 구성 특성을 그대로 살린 전통을 복구하자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적 사회 문화 생태에 맞추어 이미 “한국언론계보론”에서 전개한 바 있다 (박기성, 2000).

IV. 한국 언론관의 형성과 계보

○ 한국 언론의 원형과 계보

언어의 생태에 따른 사회문화적 구성 현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한국 사회의 언론은 근대 신문과 잡지 등이 출현하는 개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왕조 시대로 소급한다. 왕조 시대의 대간제도와 같은 현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언론으로 명명해온 사회 문화적 현상을 필자는 원형으로 설정한다.

한국 언론의 원형은 필자가 착안한 생태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한자어 “言論” 활용이 이루어진 전통 사회로 소급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적 언론(speech)과 비교해 보면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말의 의미 포섭성과 사회문화적 존재 양식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한국적 고유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양자 모두 인간의 언어적 표현을 규정한 말이라는 점에 공통성을 가진다. 이러한 토착적 언론 개념은 개화기를 지나 일제하에서도 활용된다. 서양의 speech 중심 언론관과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이 혼합을 이루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방후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구어 언론인 speech 중심 언론관 전통이 점차 희석되고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이 보다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서양으로부터 전래되어온 외래 어휘와 대비시켜 보면 언론이라는 말이 대중매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남발되고 포괄적으로 되어버린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speech, discussion, press, journalism,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 newspaper, broadcasting 등이 거의 모두 언론으로 번역되어 통용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편향성은 대중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언론 기능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 내지 신화화가 빚어낸 결과임에 틀림없다.

한국 언론 철학의 설정과 언론 계보화 가능성은 전통 사회에 있어온 한문 문헌, 개화기의 문헌 자료를 접하면서 착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초 시도는 이미 <한국 개화기 언론의 이원적 계보

> <한국 언론 계보화와 불교 언론>에서 논한 바 있다(박기성, 1993a; 1993b).

용례의 근거로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한국사회에 대중매체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언론>이라는 말이 의사표현 현상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장구한 역사를 자저울 수 있었고 이러한 문헌의 현상을 유추하면 다양한 표현현상으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고유성을 전제하여 한국사회가 내재해온 이러한 언론 현상을 구미의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press 등의 관념적 틀을 적용하기 이전에 한국 현상 그 자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져온 독자성이 있고 그 자체가 충분한 의미와 전통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래적인 인식의 틀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현상을 조명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 안목 그 자체로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언론>을 역사적으로 소급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언론>이나 이와 비슷한 의사 소통 행위를 규정하는 개념들의 발굴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문 자료로부터 한글 자료까지 실용화 사례를 대상으로 할 때 <언론>이라는 개념 권역에 속하는 어휘로는 언사, 언설, 문사, 논평, 논설, 담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언론 개념 권역에 해당하는 유사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언론이라는 개념이 사회문화의 생태적 맥락에 따라 계보화가 진행되어 왔음이 입증된다.

그 결과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계보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념의 의미 함축성 정도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려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언론 생태 계보를 이미 <<한국방송비평론>>에서 시안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이를 수정 보완하여 위와 같이 <한국 언론 구성 계보도>를 작성한다. 본 계보도는 흔히 구조론에서 말하는 유형론이나 역사적 접근 방법에서 다루는 시대 구분 방법이 아니다. 계보의 사회문화적 생태를 서술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식이다.

오랜 전통 세간부터 한자 매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심성 다스림을 논하는 수성주의(修性主義)를 이념으로 하는 언문 언론이 있어 왔다. 개화 언론은 신문 잡지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출현하면서 근대 언론이 파종되는 전환기의 언론으로 계몽주의를 철학으로 한다. 서구 언론 사조와 함께 일제하에서는 언문 언론의 위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해방이후 신문, 잡지, 방송은 서구적 근대성의 사회적 실천을 주도하며 시성을 배경으로 한 자유주의가 주요 핵심 철학이 된다. 정보 언론은 미래의 언론이며 심성 중심의 수성주의와 사회 중심의 자유주의를 동시에 융섭하는 탐구주의를 철학을 필요로 한다.

이들 언론은 상보적이며 각각 사회 여건에 따라 변용된 생명주기를 유지한다. 구조화된 채 각각의 구획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언론의 체성(體性)은 부단히 변용하고 계보를 형성한다. 매체의 표현, 제도 운용, 경영 조건, 사회적 인식의 편파성 등 복합적 여건에 따라 계보는 발생, 생성, 성장, 순환, 쇠퇴, 사멸 등의 주기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언론 계보를 문헌 중심으로 분석 평가해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문 언론의 전통이 매몰되고 대중매체 중심으로 파종된 서구적 언론관이 주도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전통 복원을 위하여 언문 언론 계보의 재탐구와 서구적 언론관 수용 과정에 등한시해버린 <speech> 영역과 다른 영역의 상호 관계 재평가가 필요하다.

한국 언론 구성 계보도

언론영역	언론철학	주요매체	시대(전통세간-개화기-해방후-2천년대)
언문언론	수성주의	언어, 문자	-----?
개화언론	계몽주의	언어, 문자 신문, 잡지	-----? -----
대중언론	자유주의	언어 문자 신문, 잡지 방송	---????????? ----- -----
정보언론	탐구주의 (수성주의+ 자유주의)	언어, 문자 신문, 잡지 방송 전자매체(인터넷)	----- ----- ----- ---

○ 전통 세간의 언문 언론(言文 言論)

언문 언론이라 함은 言論이 인간 심성의 도야와 각성 즉 수행에 역점을 두는 과정을 논하는 활동이다. 수성주의(修性主義)라 함은 사람의 심성을 수도하고 도야하는 수행을 말하며 유교 불교 도교의 입장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시대에 언론이라는 말이 외형적으로는 논리적 체계를 갖춘 언어 문자적 표현 행위를 의미하나 본질에 있어서 언론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관이 정립되지 않고 세간관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인식이 유지된 시기에 주로 형성된 언론이다.

言論의 용례를 시대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라 시대의 불교 철학, 조선시대의 성리학 등의 문헌에서 언론이라는 말이 사용된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간의 언론 활동에서 언론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김민환, 1996; 박준석, 1994; 이동준, 1975; 이상희, 1993; 이석호, 1993; 조맹기, 1997; 정대철, 1999). 왕조 시대의 전통 사회에서는 언론이 인간 심성의 올바른 다스림이나 도야에 맞추어졌고 언어 문자 중심의 철학적 논구에 맞추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문 언론으로 명명한다. 서구적 speech와 대비될 수 있는 개념이면서도 보다 차원 높은 철학적 담론이나 논리성을 갖춘 변론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론은 오늘날의 비판과 유사한 개념이다.

팔만대장경을 근거로 할 때 한문으로 번역된 불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전개한 논소에는 약 130회에 가까운 <言論>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言論>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특성을 규정한 부분도 있다. 세간언론(世間言論)을 세론(世論)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주자학자 한원진은 저서 <<주자언론동이교(朱子言論同異攷)>>에서 언론 개념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언론은 철학적 논리적 언설 행위(또는 담론 행위)로 규정된다(한원진). 이언적은 언로론(言路論)을 전개한다(이언적, 1967). 주자학에서도 <言論>은 활용된다. 조선 시대에는 조정의 대간 공론 활동을 언론으로 규정한다(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58) (정대철, 1999).

이러한 전통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언론 개념 용례를 근대화 이전으로 소급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전통 언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용례를 종합 유추해보면 우리의 전통 공동체 시대로부터 <言論>이라는 말은 있었고 <철학적 논리적 체계를 갖춘 언어 문자 중심의 논구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언론이

함축하는 의미의 본질은 불교 철학에서 심성의 각성이나 주자학에서 심성의 수도를 논하는 의미로부터 대간의 공론(公論)까지 변용되어 왔다.

○ 개화기의 두 계보 언론

개화기의 언론 현상은 두 계보를 이루는데 전통적 언문 언론과 근대 언론이 유기적 융섭 관계를 갖지 못하고 전환기를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화 언론은 인간의 개인적 계몽을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당시 사회가 왕조 중심의 국가에서 국민(당시는 주로 인민으로 표기함) 중심 국가로,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 사상이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계몽이 강조되는 시기에 출현한 언론이다.

개화기 언론에서 핵심이 되는 철학은 계몽주의이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이며 사회 계약과 실천에 의하여 이상적 완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화 언론은 일제의 식민지 강점기를 지나면서 대중 계몽과 근대 언론 정신의 수용과 함께 민족 자주와 독립이라는 명제에 입각한 대항 민족 언론으로 나타난다. 한글 신문이나 잡지 중심으로 형성되는 계몽 언론은 처음 출현하면서 언론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언론으로 인식이 구축되어 간다. 개화기의 계몽 언론은 여전히 언문 언론 개념이 여전히 그대로 통용되는 반면에 대중매체는 아직 언론으로 거의 규정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

개화기는 고유한 언론 전통이 위축되면서 대중매체 중심의 대중 언론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는 시기의 언론 현상이다. 신문과 잡지가 간행되지만 신문 잡지 및 그 편집 행위를 언론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통한 개인의 언어 문자 중심의 의사 표현을 언론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조선의 개화 초기에 활동한 유길준의 <언론관>을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로는 저술에서 두 가지의 흥미있는 <언론> 또는 <언사>의 개념을 활용한 사용 사례와 <한성부 신문국 장정>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대는 아직도 사회, 문화, 언론 등이 한국적 근대 토양에 맞추어 정착되지 아니한 시기이다. 유길준은 서구의 언론 자유를 논하면서 <언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병행하여 쓰고 있다. <<서유견문>>에서는 <言辭의 자유>로 쓴다.

<신문국 장정>에서는 신문공보(新聞公報)라 하여 신문지론(新聞紙論)을 전개하면서 이를 언론으로 규정한 흔적은 없어 신문을 직접 언론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유길준이 1906년에 결성하는 홍사단 규칙에서도 언론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홍사단 규칙>에서 쓰는 <言論>은 신문 잡지 중심의 언론이 아니라 개인의 언어적 표현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활용된다. 제30조에서 “단원의 言論급 행동이 본단 취지에 위반되는 자는 출단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길준의 저술 중 <정치학>에서 서구적 사회론을 전개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소개하고 있고 freedom of speech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다.

장지연의 언론 활동에서도 언론은 적어도 전통적으로 있어온 언어 문자 중심의 표현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장지연, 1956).

이러한 자취를 종합하여 유추하면 전통적으로 있어온 언어적 표현 행위(speech)를 言論으로 규정하여 1900년대 이후에도 활용되어 온 반면에 적어도 신문이 출현하는 초기에 신문이 <언론>의 체성은 가지나 대중 매체 중심의 언론 인식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볼 때 개화기의 개화 언론에서 언론 개념은 전통적으로 있어온 언문 언론과 새롭게 제도화하는 대중 언론의 이원적 계보가 동시에 병존하는 변환기이다. 신문법이 제정

되고 서구적 근대 신문의 양식이 출현하게 되지만 이들에 대한 언론 인식이 정착하기까지는 일 본식 언론관 영향과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간이 소요된다. 신문이 처음 출현하면서 언론으로의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문의 본질을 규정하여 언론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기존 언어적 표현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된 언론 개념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고 그와 같은 사례는 국민 교육의 대표적 상징이 되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잡지의 기고 문이나 저명 인사가 사용한 "언론" 어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근대 사회와 대중 언론

대중 언론은 국문 중심의 편집 방식에 의한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의 대량 보급과 함께 서구적 이성을 배경으로 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는 언론이다. 반면에 언어 문자 중심으로 규정되어온 언론관이 희박해져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미의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등을 이상적 언론 모델로 하여 대중 언론은 대중매체의 특성과 그 구성 양식에 따라 신문 언론, 잡지 언론, 방송 언론 등으로 다양한 매체가 출현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를 견제 감시하는 제 4부, 감시견, 여론의 광장, 환경 감시 및 문화 전승 등이 대중 언론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된다.

대중매체의 출현과 사회화의 과정을 보면 매체 자체의 표현 및 경영 체제 정예화와 병행하여 사회적 보급이 진행되면서 언론으로 정착하는 주기를 가져왔다. 구미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 매체 보급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의 개발기의 생태적 특성을 관찰해 보면 모든 매체가 처음 출현하면서부터 체계적인 언론관에 근거한 언론으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언론으로 정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사회라는 토양과 환경에서 대중 언론의 체질적 실용화는 4단계로 체성(體性)을 구성해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시대 구분에 의한 역사적 접근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언론으로서 갖는 생태구성적 체성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함이다.

제1차는 한성순보의 간행이후 삼일 운동 전후까지 개화 언론이 주도하던 시기동안 진행된다. 개화 언론은 단순히 계몽기의 언론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언론으로서의 정착과 성장을 준비 실험하는 실험기이기도 하다. 한문 또는 국한문 혼용 신문과 잡지가 제작 배포되고 점차 한글 전용 편집 체제로 바뀌어 간다. 그러나 한글의 문자 해독에 의한 전국적 대량 독자의 확보가 미흡하여 대중적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의 매체이다. 전통적으로 있어온 언어 문자 중심으로 언론관이 유지된 시기이다.

제2차는 삼일 운동이후 신문 잡지 중심으로 형성되는 제국주의 반일 저항의식과 함께 민족 언론의 사회적 필요성이 성숙되면서 일제가 제도적으로 신문과 잡지의 간행을 허가하면서 등장하는 언론상(言論相)이다. 한편으로는 독립과 자주를 기치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문화적 권위주의가 젖어 들며 대중매체 중심으로 언론관이 정립되어 간다. 민족 자존과 자주성의 회복과 독립, 우열의 문화의식을 배경으로 한 서구적 문화 수용에 의한 문화 발전이 대중매체의 주요 이상이였다.

그러나 해방까지 문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신문이나 잡지는 식자층을 중심으로 한 언론으로 남아 있었다. 라디오 방송은 1927년 일제에 의하여 경성방송국으로 개국하여 조선 방송협회로 전환되고 전국망을 구축해가지만 일제하에서뿐만 아니라 해방이후 군정기에도 대중

언론의 기능을 실험하는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제강점 하에서 방송국은 경영 방식으로는 민영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국가 통제를 받는 선전 기관이며 식민지 문화 이식과 전시 동원을 수행하는 문화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한 매체였다.

제3차는 해방이후 정립되는 자주적 환경을 배경으로 새 질서 구축과 함께 현현하는 언론상이다. 일제하에서 자주성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면서 서구적 근대성을 이상적 체질로 하려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이데올로기, 정치적 민주주의, 엘리트적 권위주의가 언론의 체질로 구성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신문이나 잡지가 출현한다. 언론 일치에 의한 편집과 대량 독자의 확보로 매체의 제도적 정착과 함께 경영 방식에 개선이 진행된다. 그러나 라디오를 중심으로 보급되는 방송은 아직도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정착하지 못한다. 텔레비전이 출현하지만 신기성을 벗어나는 상태로 되지 못한다.

제4차는 디지털 기술 시대와 함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매체 중심의 현상이다. 인터넷은 사적 통신 영역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새로운 공론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기존 대중매체의 정보유통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전자 신문, 인터넷 방송, 전자 출판 및 전자 잡지는 새로운 실험기를 맞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대중매체가 일제강점 하에서는 식민지 정치에 저항하면서 민족주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민주화의 과정에는 제4부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사회 환경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감시견(watchdog)의 역할에도 대중은 동의한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환경은 다수의 여론을 수렴하고 저항 투쟁을 유도하는 대중적 언론이 필요했고 신문 방송 잡지가 일부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지속을 비호하는 대중매체로 남아 있는 매체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인간의 본질에 깊은 철학적 물음과 이에 따른 답을 얻어내는 노력에는 소극적이며 인간이 이성(reason)을 가진 존재라는 당위적 명제를 한국 사회문화적 생태 속에서 검증 없이 신봉하여 인간의 사회적 위치를 설정 단정해버리는 누를 범했다. 이로 인하여 토착적으로 있어온 심성 중심의 인간관과 서구적 이성 중심의 인간관이 조화를 이루는 철학적 노력이 미흡했으며 적극적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다. 한국 대중매체가 언론으로 위치할 토착적 환경 설정에도 등한하였다.

○ 한국 언론관의 재설정

이상의 언론 계보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언론은 대중매체 중심의 표현 현상 뿐 아니라 공중의 자유 표현(free expression)이나 언어 문자 표현 중심의 언론(free speech)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이 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소 인식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진행되어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언론이 논의되고 편착된 형국으로 되고 있다. 대중매체의 현상을 중심으로 언론을 설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언론 언론을 등한시해버린 경향이 있고 이러한 발상은 한국의 언론 규제 제도의 정립에도 문제가 된다.

구어 중심의 언론 언론을 기반으로 하고 그 토대 위에 대중매체 또는 인터넷 공론까지 언론의 영역으로 설정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미의 언론 제도 형성 과정과 한국의 언론 제도의 경우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 한국 사회에도 영미의 speech나 press에 해당하는 토착적으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는 언론 행위가 있었다. 영국의 계몽기에 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호받으려는 대응이 있었고 당시 사회가 남녀 불평등(남성 중심)과 시민 사회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의 전통 언론이 처했던 사회문화적 환경과 유사성을 가진다. 반면에 영국의 speech나 press가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받고자 하는 점이 쟁점이었다면 한국의 언론은 철학적 담론의 성격 내지 조정의 대간 행위 중심이었다.

(2) 서양의 press,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mass media가 speech나 사상(thought)에 착안한 변용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 역시 이러한 근거에서 확립되고 있다. 서양의 언론 원형은 인간의 사유, 말과 글로서의 의사 표현과 같은 사회 속의 개인에서 출발한다. 이를 수탁하거나 사회 제도화 한 것이 mass communication, mass media 등이다.

(3) 한국은 언론을 점차 대중매체 중심으로 축소 규정한다. 한국에서 대중매체 중심으로 제도적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언론통폐합과 함께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연원한다.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은 신문과 방송을 지칭함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와 함께 언론인, 언론계, 언론사 등 언론은 신문, 방송, 잡지, 통신(뉴스 통신) 등 특정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전문업으로 축소 규정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인간이 표현하는 언어 문자 및 사상의 표현 활동 전통은 점차 희석되어 왔다. 언론 통폐합의 그 자체 재조명도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간 중심의 언론 전통이 매장되어 버린 것이 문제이며 복원되어야 한다.

(4) 신문 방송 잡지 등 대중매체=언론이라는 등식이 디지털 매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언론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표현매체로 규정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론관은 대중매체 및 그 표현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중매체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 원리가 가세하면서 기존 구획화된 매체 유형의 동질성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다.

(5) 인터넷은 또 하나의 공권역(公圏域: public sphere)으로서의 언론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터넷은 기존 대중매체의 영역을 수렴하는(융합하는) 역할도 맞지만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매체로 점차 정착해가고 있다. 전통적 speech나 press의 새로운 변형이 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관으로 인터넷을 규정하고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6) 언론을 규정하는 인식의 편착성(偏着性)도 심각한 문제이다. 언론인, 국회, 정부, 학자, 시민 등 사회의 구성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언론 규정은 다면성을 내재한다. 다양성을 떠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특정한 시각에 집착한 나머지 언론의 생태와 매체 공학기술 및 사회 제도 관계를 대비시킨 인식의 전환과 각성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7). 사회적 인식 편향성으로 인한 언어 오용이다. 현재 대중매체와 사회적 공동 의식에는 언론과 관련한 몇 가지 언어적 제도적 오용과 편향성이 지배하고 있다. 언론, 언론인(계), 언론사(기

관), 자율성, 자율 규제, 규제 등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이나 언론사만이 향유하는 특권이 아니라 공중이 향유하는 자유이다. 단지 대중매체는 이러한 언론을 사회적 계약에 의하여 수렴하고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 기획, 취재, 제작, 편성, 편집의 책임과 본질이 있다.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관이 결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언론기본법이다. 언론기본법은 특정 정치권력에 의한 대중매체의 기형적 통제라는 측면 외에도 국민이 공중으로 가지는 언론의 자유를 배제시켜 버린 결정적인 법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거의 조명되지 않고 있다. 대중매체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민의식을 고착시켜 가고 대중은 알지 못하고 언론기관만이 누리는 자유가 언론의 자유인 것처럼 혼돈하고 있다.

자율성, 자율 규제라는 말 역시 관념적 환상에 빠지고 있다. 자율성이란 서구적 근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주적 자세가 갖추어져 스스로 조절 기능이 성숙할 때 자율성의 완성으로 본다. 자율성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완성형의 수준까지 진폭을 가진다. 그러나 흔히 자율성, 자율 규제라는 것이 외부 규제나 강제 규제를 벗어나면 당장 자율 규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 언론관의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가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언론에 대한 포괄적이며 실용적인 인식과 해석의 확대이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언론 행위를 언론으로 규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 텔레비전 기자가 뉴스의 취재 보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이 인터뷰로 표현되었다고 할 경우 이 때 이 시민의 의사 표현은 언론이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써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고 할 때 언론이다. 자신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취재되어 표현될 때 이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는 언론 행위를 한 것이다.

편향된 보도가 있다고 할 때 언론 활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다른 한쪽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론권의 근거는 대중매체의 표현 행위에서 편집의 편파성으로 인한 양면 또는 다수의 다양한 언론 행위 가능성을 추정할 때 균형을 잃어버린 점에 착안한 피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신문 방송 등의 대중 매체가 행하는 편집 편성 등 전문 조직의 표현 활동 뿐 아니라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까지 확대 해석해야 한다. 언론의 가장 기초는 개인이 사유하고 말하고 쓰는 자유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대중매체 중심으로 언론관이 설정되는 축소지향적 요인은 대중 매체 스스로 언론의 범위를 대중매체, 또는 그들의 표현 활동으로 한정지어 상용화하려는 경향은 물리적 형질적 매체 중심의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중적 인식도 그렇게 축소지향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은 심각한 문제이다.

(2) 한국 언론관의 성립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사회철학적 문제이다. 이제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명제 하에 서양적 근대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근대화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우리 사회의 틀에 맞는 철학의 설정이 필요하다. 개인의 개체성과 사회의 공동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철학을 모색해야 한다. 서양의 근대사 사조는 약 200년이라는 기간동안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실험되어 왔고 그 위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포스

트 모더니즘, 신자유주의 등의 사조가 확산되고 언론의 위치는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른 변환의 변혁기로 진입하고 있다.

(3) 과거 우리 사회에 도착화해 온 심성 활동 중심의 언론관을 계승하여 한국적 토양을 고려한 재평가와 서양적 언론관의 비판적 접합이 필요하다. 한국적 언론관이 인간 중심 도야에 역점을 둔 점과 서양 사회 속에서의 수평적 자유를 배경으로 한 언론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착화되어온 한국 사회의 언론관은 언어 문자를 통한 의사 표현이며 인간 도야의 한 과정을 논하는 행위이다. 서양이 공동체적 토론과 다수에 의한 공동성 구축에 언론(speech)이 중요 축을 이룬다면 동양의 고전적 전통은 언어의 절제와 철학적 탐구에 언론의 본질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자를 결합하면 동양의 개성적 인격 수양과 서양의 사회적 공동성의 결합으로 언론이 보다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4) 디지털 공학기술과 지식 정보화는 전혀 새로운 언론 생태가 아니라 공학기술개발에 의한 변용상(變容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적합한 언론관 설정과 필요한 제도적 규제 장치 확립이 필요하다.

V. 윤리 규제 제도 운용과 대안

○ 윤리 규제 제도 비판

언론이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체성(體性)과 활동은 사회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정향과 합목적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계약 형태로 규제(regulation)가 따른다. 규제는 철학적 타산이 개재된 윤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공중의 이해 관계에 맞추어 절제와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한국 사회의 신문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가 제도적으로 정착해온 과정을 보면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는 정의와 정치적 경제적 이해 타산에 빠진 타락을 진폭으로 하는 장구한 몸부림이 있어왔다.

이러한 과정에 윤리의 형성과 규제의 제도화가 초래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한국의 대중매체는 오랜 기간동안 정부 주도 규제 중심으로 유지되어 자율성을 갖춘 분산 규제 체제가 육성되지 못했다. 언론으로서의 대중매체의 위치는 국민, 국가, 언론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대중매체의 함수 관계로 되어 언론의 규제가 오랜 기간동안 대중매체 중심으로 행정부 중심 통제여서 국민과의 거리감을 단축시키는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국 근대 대중매체 성립 100년을 되돌아보면 대중매체는 언론의 자격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모든 규제가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편집 편성 등의 표현 활동 독립과 자립 규제 체제 확립이 가장 핵심이 된다. 경영 규제 및 경제 규제는 사회의 경제 활동 규제 체제에 맞춘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국민이 공중으로서 가지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 현상을 대중매체의 표현 활동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표현자 중심이어서 수용자 중심 시대에 적합한 체질 마련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시민의 자유 의식이 활성화되는데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대중매체 스스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